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5년 3월 10일
감 수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3	컨테이너선	14
탱커선	17	중고선	19	주요 해운지표	20

건화물선 케이프선 운임은 전주 대비 48.1% 상승한 17,163달러/일을 기록

컨테이너선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79p 하락한 1,436을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0.6p 하락한 57.1을 기록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영재 연구원 / cyj@kmi.re.kr | 051-797-4608

최건우 해운정책연구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브라질, 미-중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대두 수출량 증가

- ▶ 선박중개업체 BRS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관세 조치는 향후 몇 개월 내로 상호 보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두 수입처는 미국산보다는 브라질산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음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대두 수출 성수기가 종료되고 남미의 대두 수확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관세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선박중개업체 얼라이드 쉽브로킹(Allied Shipbroking)은 미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향하던 파나막스선 및 수프라막스 선박의 항로가 남미 항로로 변경되어 톤마일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함
- ▶ 얼라이드 쉽브로킹 측은 이미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했기 때문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시기와는 달리 이번에 재도입된 관세의 영향은 미국 대두 수출 부문의 타격은 덜 심각할 것이라 예상함
 - 클락슨 시큐리티즈 측 역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대비해 이번에는 관세가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곡물 수출처 역시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지로 다변화되어 중국 수출 손실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 평가함
 - 이러한 향후 예상에 대해 BRS 측은 중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자극하여 미국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보복이 초래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bulkers/us-china-tit-for-tat-tariffs-to-boost-brazilian-soy-shipments/2-1-1787719>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중국, 2025년 1월~2월 석탄 수입량 사상 최고치 경신

- ▶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은 3월 8일 발표된 공식 데이터를 인용하여 2025년 1월~2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한 7,61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음
 - 향후 전망에 대해 중국의 은하 선물(Galaxy Futures)은 국내 석탄 가격이 1월과 2월에 크게 하락하여 수입 수익이 감소하고 항만 재고가 증가하여 중국 기업의 석탄 수입 수요가 다소 저하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은하 선물 측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2025년 3월 및 4월의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몇 개월 동안 석탄 수입 증가폭 역시 축소될 것이라 보도함
- ▶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로 인해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국 에너지기업 쉐화 에너지(Shenhua Energy)는 항만 재고 증가로 인해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함
 - 주요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정부 고시 가격을 국제 거래에 적용할 것이라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석탄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수입 석탄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것이라 예상됨
 - 이에 따라 중국석탄운송유통협회(China Coal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Association)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석탄 수입량은 올해 1.9% 감소한 5억 2,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s-coal-imports-nudge-up-to-record-but-risks-to-outlook-rise/>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1. 주간뉴스

인도네시아, 약 50만 배럴/일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계획 발표

- ▶ 지난 3월 4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약 1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50만 배럴/일 규모의 신규 정유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유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음
 - 신규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 및 가스, 광업, 농업, 해양 등 4대 산업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400억 달러 규모의 21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건설 계획의 핵심 사업임
- ▶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는 신규 정유시설과 함께 약 30일분의 석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석유 저장 시설 건설 계획과 함께 LPG 대체재로 활용되는 디메틸에테르(DME) 생산 계획도 포함됨
 - 라하달리아 장관은 또한 모든 사업은 국내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 또한 국내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특히 디메틸에테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분야의 수입 의존도 최소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함

자료: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refined-products/030525-in-donesia-plans-500000-bd-oil-refinery-amid-energy-security-push>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석유수출국기구, 단계적 감산 해제 발표

-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회원국은 지난 몇 개월 간의 조정 끝에 2026년 말까지 매월 138,000 배럴씩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여 기존 220만 배럴/일 규모의 감산 기조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을 발표함
 - 이러한 증산 계획에 대해 투자은행 클락슨 시큐리티즈(Clarksons Securities)는 감산이 모두 해제된다면 1개월 당 VLCC 약 3척, 2026년 9월까지 총 62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투자은행 펀리 시큐리티즈(Fearnley Securities)는 이번 조치가 이미 낮은 선복 증가율과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유조선 시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함
- ▶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미국 등 비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라 보도함
 - 2022년에 시작된 감산 기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제하는 것이 석유수출국기구의 당초 계획이었으나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 증산 계획이 두 차례 연기되어 올해 4월에 시행됨
 - 펀리 시큐리티즈는 중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로부터 원유 수입 재개, 대서양 연안 산유국의 원유 수출 성수기 도래와 함께 OPEC+의 증산은 해상 물동량 및 운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언급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tankers/unexpected-opec-production-hikes-expected-to-boost-tanker-fortunes/2-1-1787758>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2. 건화물선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3월 1주						
	주간평균운임	전주 대비 차이			4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7,163	▲ 5,576	48.1 %		20,376	▲ 3,101	18.0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9,101	▼ -1,009	-10.0 %		11,941	▲ 136	1.2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8,988	▼ -363	-3.9 %		10,767	▲ 48	0.5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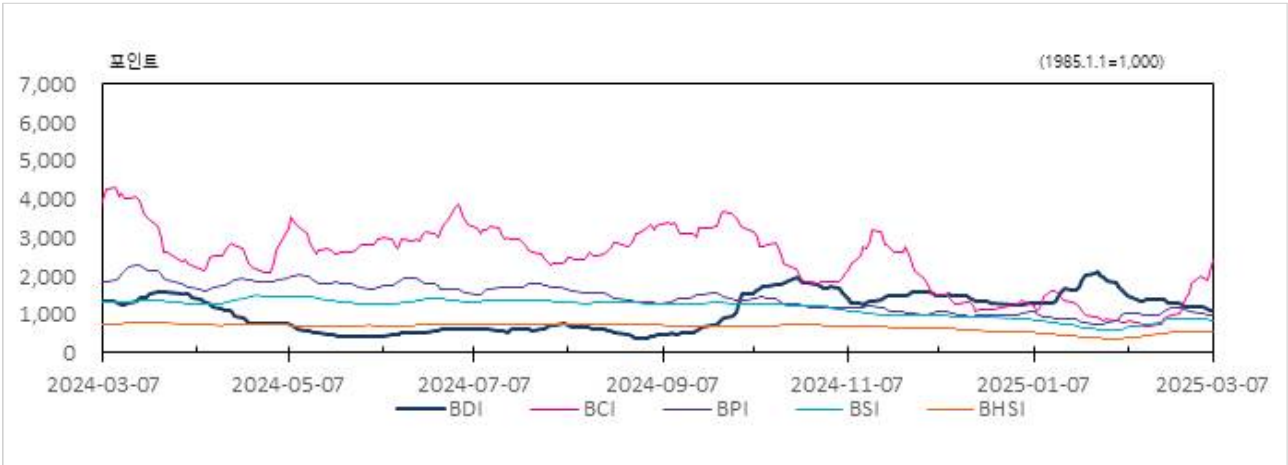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3월 1주	전주 대비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선형별 운임	운임지수 BDI	1,290	▲ 182	976	2,419	1,755	530	3,346	1,378
	케이프(5TC)	17,163	▲ 5,576	8,945	35,780	22,593	2,246	21,814	11,848
	파나마스(5TC)	9,101	▼ -1,009	8,616	20,757	14,099	7,277	16,669	12,276
	수프라막스(10TC)	8,988	▼ -363	9,637	16,441	13,601	6,874	14,703	10,928
	핸디(7TC)	9,911	▲ 108	10,197	14,537	12,660	7,763	12,703	10,317
1년 용선료	케이프	23,500	▲ 500	18,800	32,000	24,750	13,750	25,125	17,161
	파나마스	13,975	▲ 100	12,000	19,575	16,554	12,050	18,750	15,202
	수프라막스	13,375	- -	13,250	18,500	16,737	12,438	18,625	15,131
	핸디	12,000	- -	12,000	15,250	14,064	9,750	15,500	12,512
건화물선 시장(FFA)									
		4월물		2분기물		2026년물		2027년물	
		3월 1주	전주 대비	3월 1주	전주 대비	3월 1주	전주 대비	3월 1주	전주 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0,376	▲ 3,101	21,220	▲ 687	19,528	▼ -323	19,695	▼ -141
	파나마스(5TC)	11,941	▲ 136	12,551	▼ -632	11,978	▼ -207	12,107	▼ -194
	수프라막스(10TC)	10,767	▲ 48	11,383	▼ -461	10,889	▼ -227	11,039	▼ -223
	핸디(7TC)	10,673	▼ -227	11,091	▼ -568	10,725	▼ -165	10,838	▼ -130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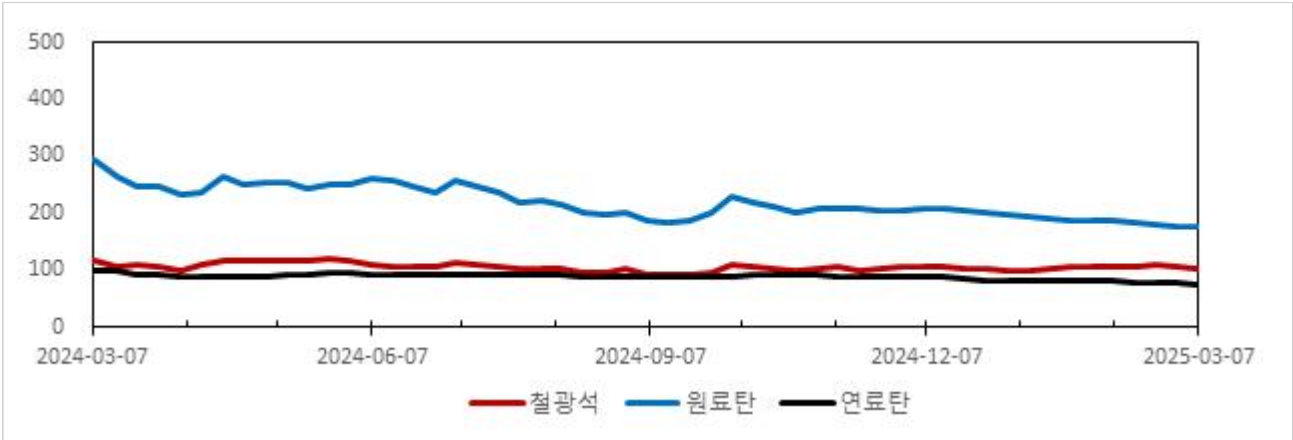
구분	2025년		전주 대비 차이				2024년			
	3월 1주	전주 대비					3월 1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01.0	106.2	▼	-5.2	-4.9	%	117.4	109.7	91.2	142.6
원료탄	177.0	176.8	▲	0.2	0.1	%	293.0	242.5	183.6	326.1
연료탄	75.1	76.4	▼	-1.3	-1.7	%	99.3	91.0	82.5	99.3
대두	367.7	376.2	▼	-8.4	-2.2	%	423.0	405.9	344.9	469.2
옥수수	174.9	185.7	▼	-10.8	-5.8	%	165.4	167.4	145.2	181.8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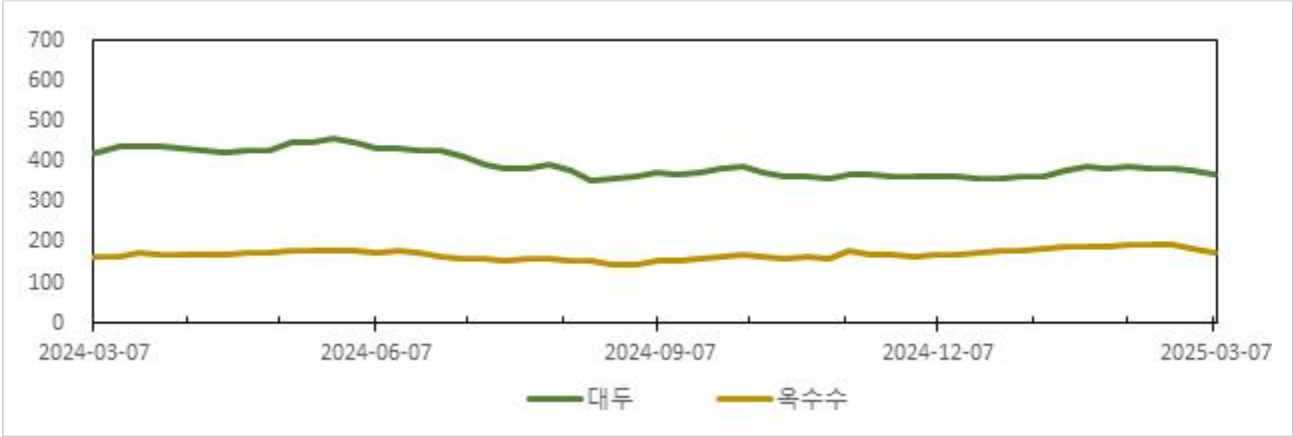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곡물 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케이프선-동향분석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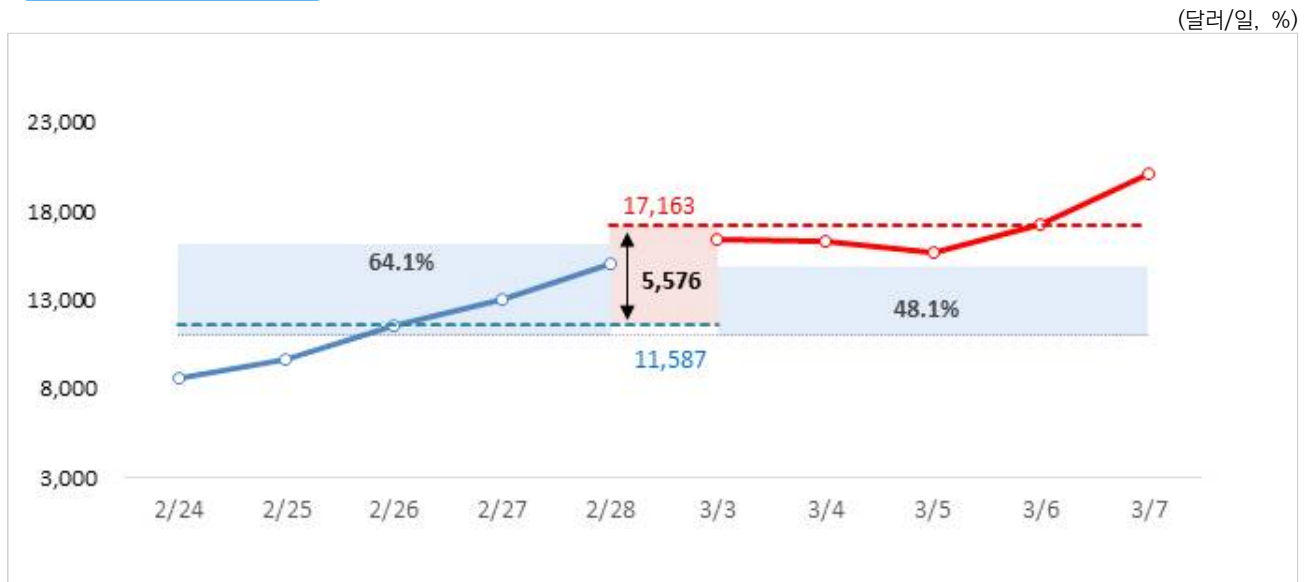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2월 4주) 대비 48.1% 상승한 17,163달러/일을 기록함

- 서호주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운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동향) 중국 당산 대기오염경보 발령, 호주 동부 사이클론 알프레드 영향 석탄 수출에 영향 예상

- 3월 7일부터 중국 당산에서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2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이에 따라 지역 내 제철소의 조강생산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조강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3월 7일 호주 동부에 상륙한 사이클론 알프레드의 영향으로 석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1주	2월 4주	전주대비차이	
BCI		2,069	1,397	▲ 672	48.1%
스팟운임(5TC)		17,163	11,587	▲ 5,576	48.1%
용선료	6개월	25,750	24,250	▲ 1,500	6.2%
	1년	23,500	23,000	▲ 500	2.2%
	5년	20,250	20,250	-	-%
FFA	4월물	20,376	17,275	▲ 3,101	18.0%
	2분기물	21,220	20,533	▲ 687	3.3%
	'26년	19,528	19,850	▼ -323	-1.6%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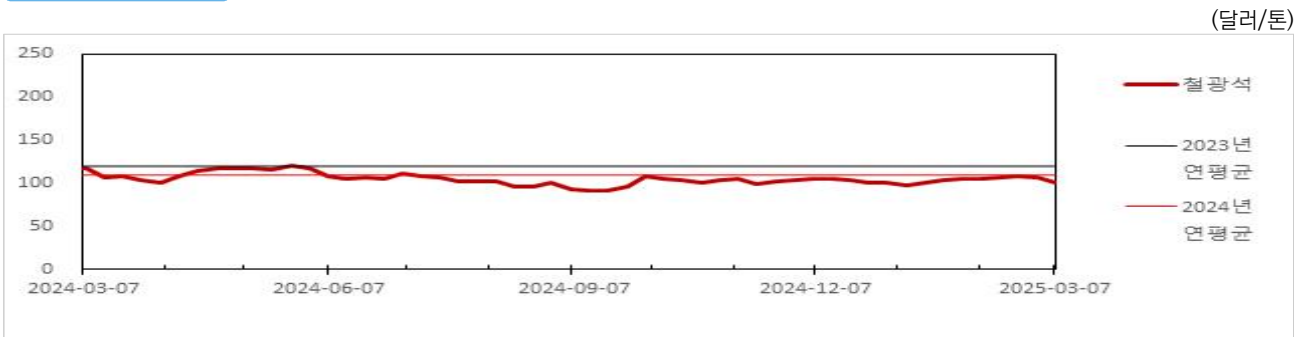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4.9% 하락한 101.0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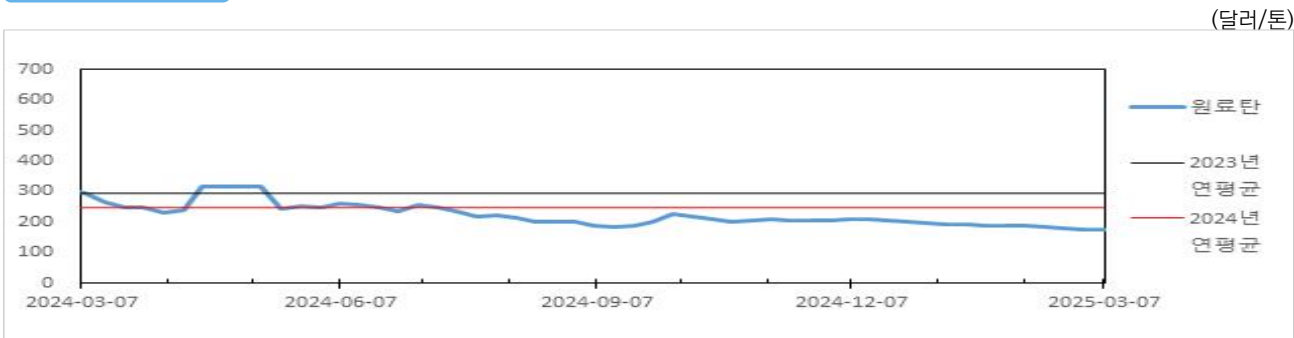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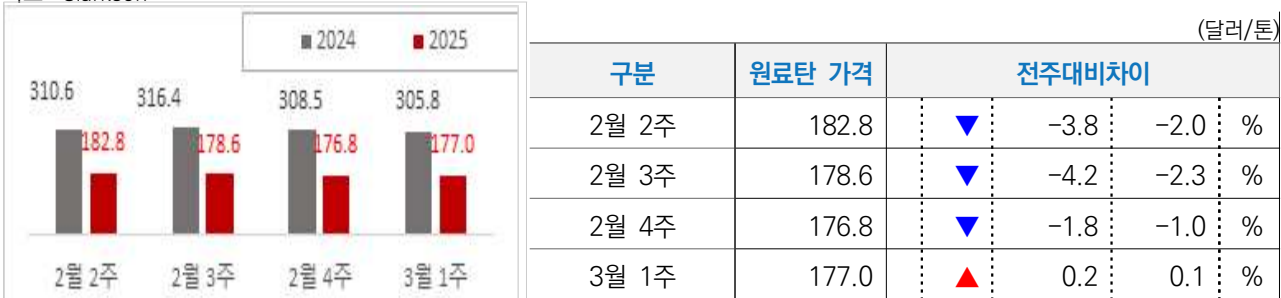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0.1% 상승한 177.0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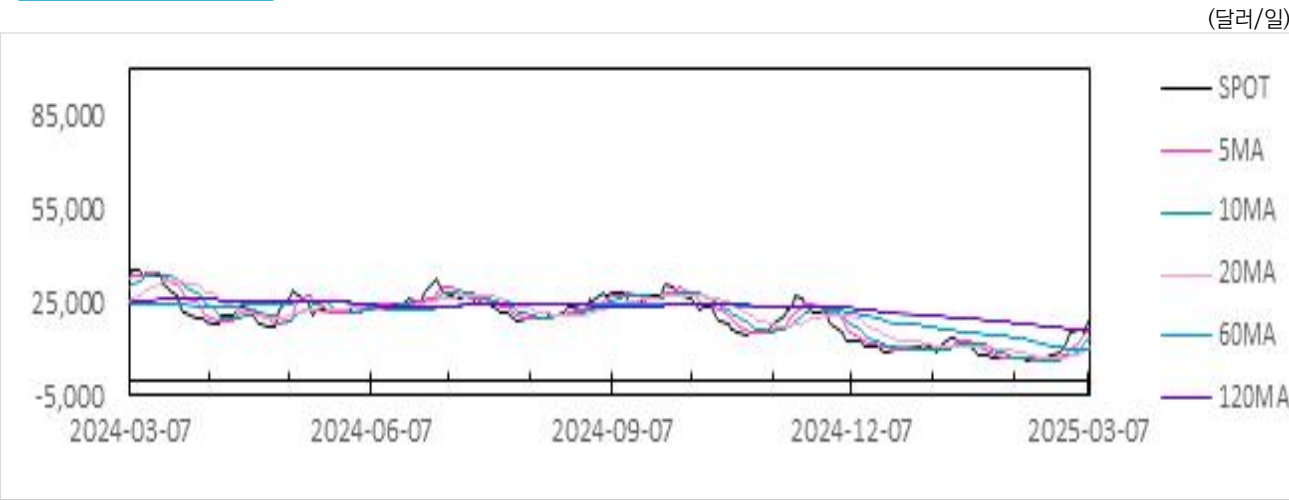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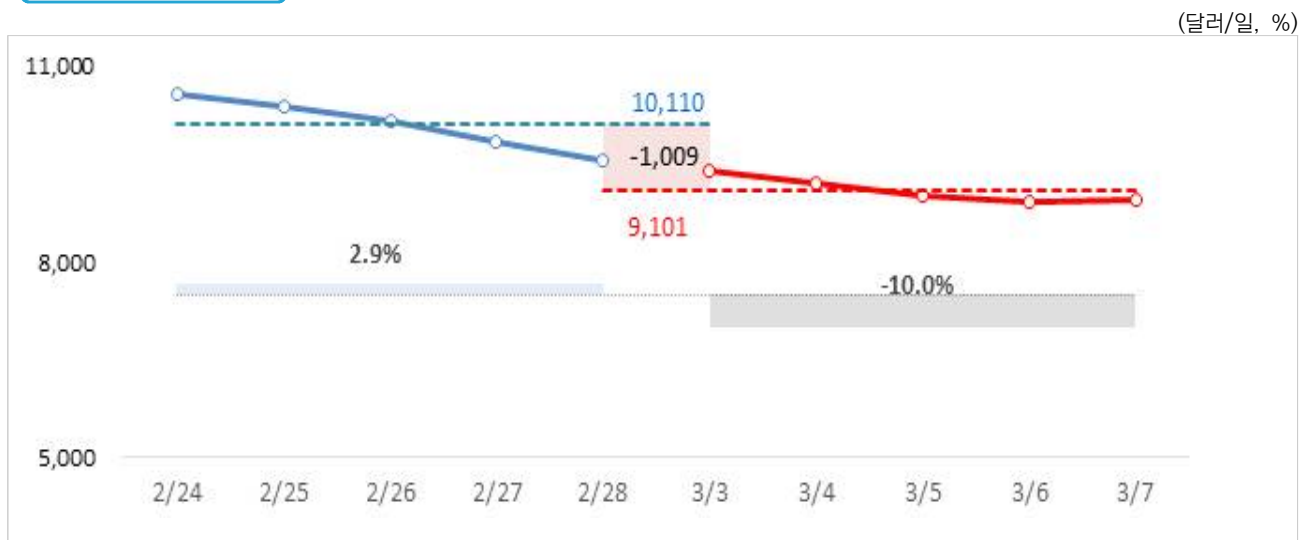
I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10.0% 하락한 9,101달러/일 기록

(동향) 중국, 석탄 공급 과잉에 따른 수입 규제 도입 검토

- 중국 당국이 석탄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중국은 2022년까지 석탄 수입을 연간 3억 톤 수준으로 제한해 왔으나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 내 석탄 생산 확대를 독려한 바 있음
- 그러나 동절기 기온이 예년에 비해 온화하게 유지되면서 석탄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석탄의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됨.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석탄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7,612만 톤으로 전년 동기(7,452만 톤) 대비 2.1% 증가했으나 향후 이러한 석탄의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1주	2월 4주	전주대비차이		
BPI	1,011	1,123	▼	-112	-10.0 %
스팟운임(5TC)	9,101	10,110	▼	-1,009	-10.0 %
용선료	6개월	13,975	▲	100	0.7 %
	1년	13,975	▲	100	0.7 %
	5년	12,500	-	-	- %
FFA	4월물	11,941	▲	136	1.2 %
	2분기물	12,551	▼	-632	-4.8 %
	'26년	11,978	▼	-207	-1.7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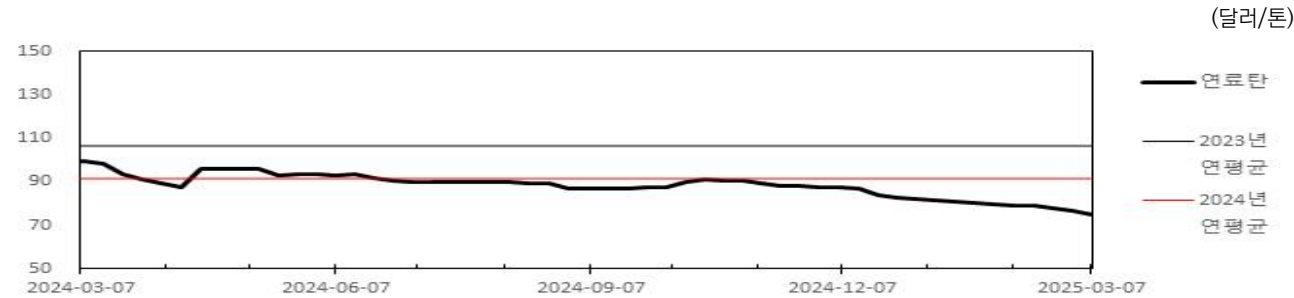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1.7% 하락한 75.1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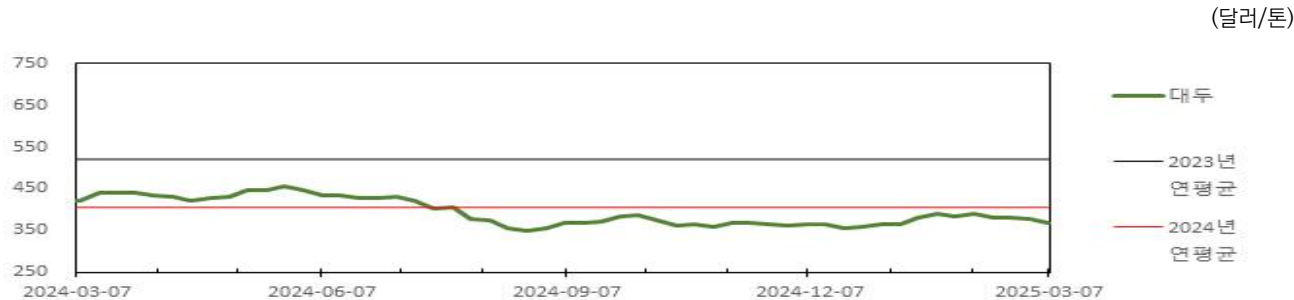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2.2% 하락한 367.7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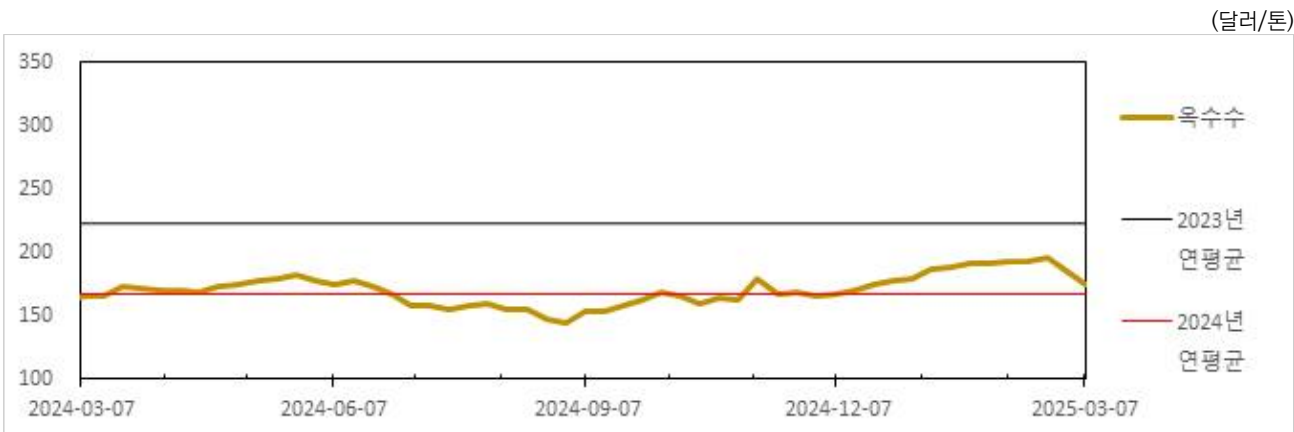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5.8% 하락한 174.9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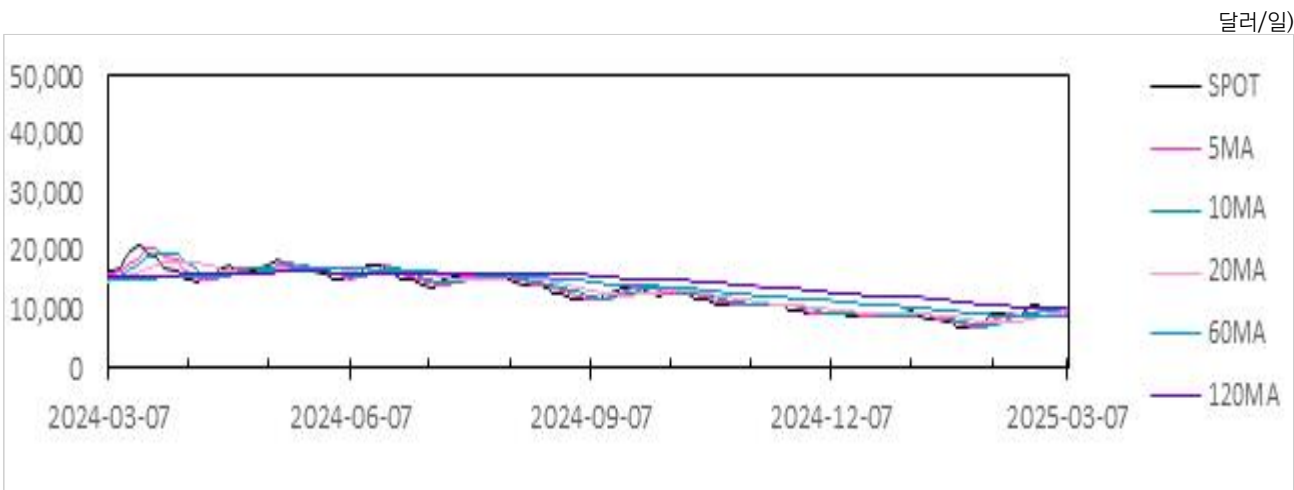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2월 2주	193.3	▼ -0.3	-0.2	%
2월 3주	195.7	▲ 2.4	1.2	%
2월 4주	185.7	▼ -10.0	-5.1	%
3월 1주	174.9	▼ -10.8	-5.8	%

3 파나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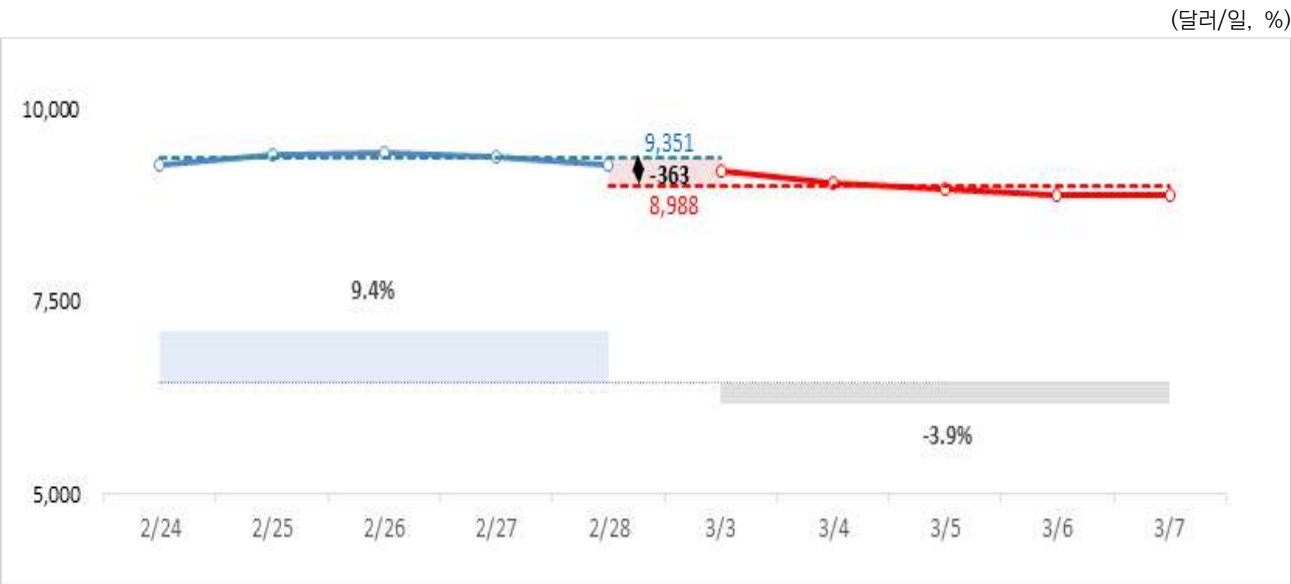
수프라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3.9% 하락한 8,988달러/일 기록

(동향)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가격 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자원부인 ESDM(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은 연료탄 수출업체가 3월 1일부터 HBA(인도네시아 석탄 기준 가격, Harga Batubara Acuan)를 적용해 석탄 수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발표함. HBA 가격은 월 2회(매월 1일과 15일) 책정됨. 이에 따라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3월 1주	2월 4주	전주대비차이	
BSI		872	901	▼ -29	-3.2 %
스팟운임(10TC)		8,988	9,351	▼ -363	-3.9 %
용선료	6개월	13,250	13,250	-	- %
	1년	13,375	13,375	-	- %
	5년	13,500	13,500	-	- %
FFA	3월물	10,767	10,718	▲ 48	0.5 %
	2분기물	11,383	11,844	▼ -461	-3.9 %
	'26년	10,889	11,116	▼ -227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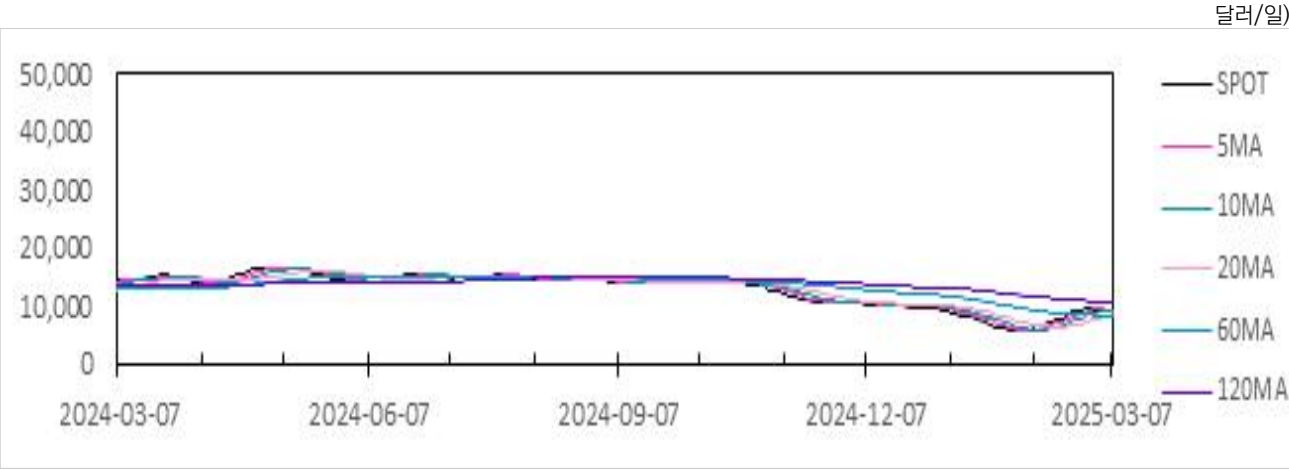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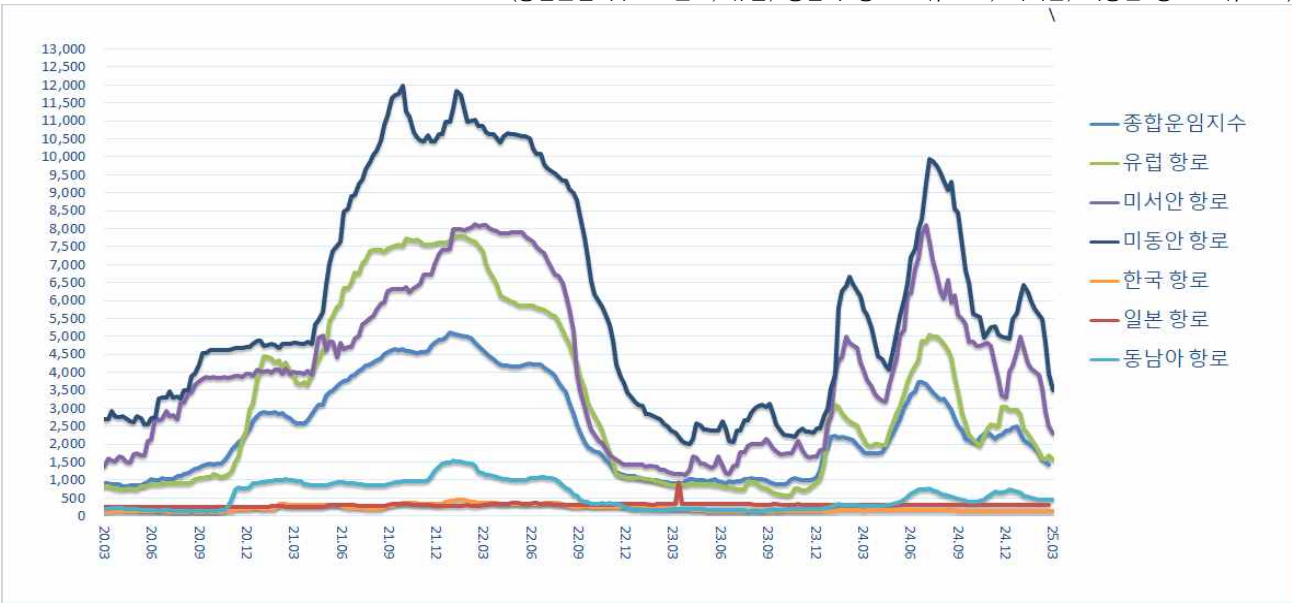
3. 컨테이너선

1 동향분석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 주 대비 79p 하락한 1,436을 기록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3월 1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1,436	-79	1,436	2,505	1,908	1,731	3,734	2,506
운임	유럽항로	1,582	-111	1,578	2,851	1,998	1,943	5,051	3,132
	미서안항로	2,291	-191	2,291	4,997	3,687	2,775	8,103	4,987
	미동안항로	3,329	-179	3,329	6,418	5,054	3,931	9,945	6,463
	한국항로	137	-	137	141	138	138	172	153
	일본항로	308	-	308	317	309	297	316	303
	동남아항로	439	-2	439	655	498	259	753	487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4. 탱커선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금주 유조선 WS는 전주 대비 0.6p 하락한 57.1을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약보합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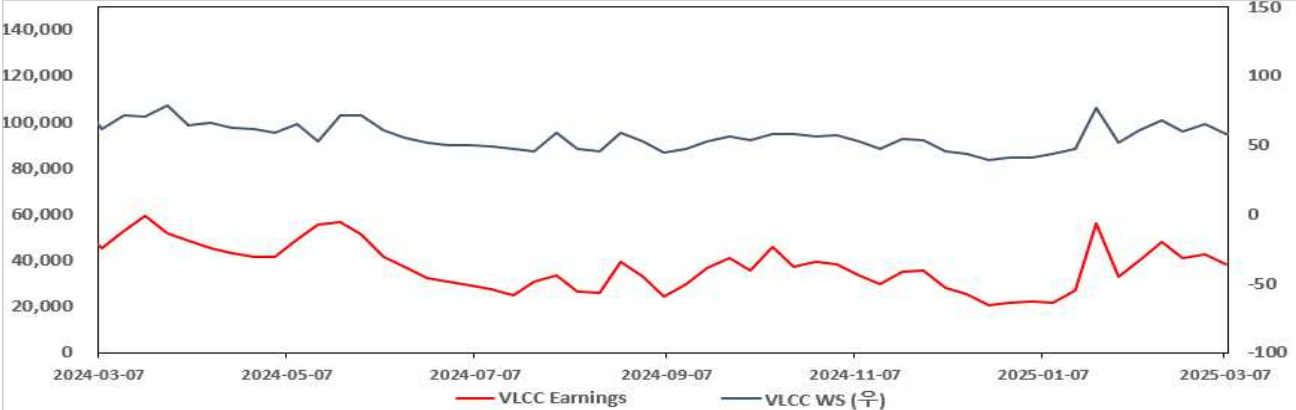
구분	3월 1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57.1	▼	0.6	1.0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1.0	-	0	0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58.0	-	0	0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59.0	▼	1.0	1.7 %

(동향) 신규 물동량 유입되면서 가용 선대 소진,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약보합세 지속

- 중동항로는 신규 물동량 유입으로 가용 선대가 일부 소진되며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멕시코산 원유 관세 부과로 대서양 수역의 원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시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미국은 G7의 러시아 '그림자 유조선대' 감시 TF 설립을 거부하고, 대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우선하고 있음. 지난 2월 G7의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도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향후 이에 향후 유조선 시장 또한 미국의 대중국 강경 기조와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3월 1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57.1	-0.6	43.3	77.2	58.9	40	80	57
항로(TD3C)	평균 수익	37,815	254	20,781	57,589	38,361	17,598	74,778	20,034
VLCC	1년 용선료	36,500	0	35,250	46,500	40,325	37,250	48,500	45,635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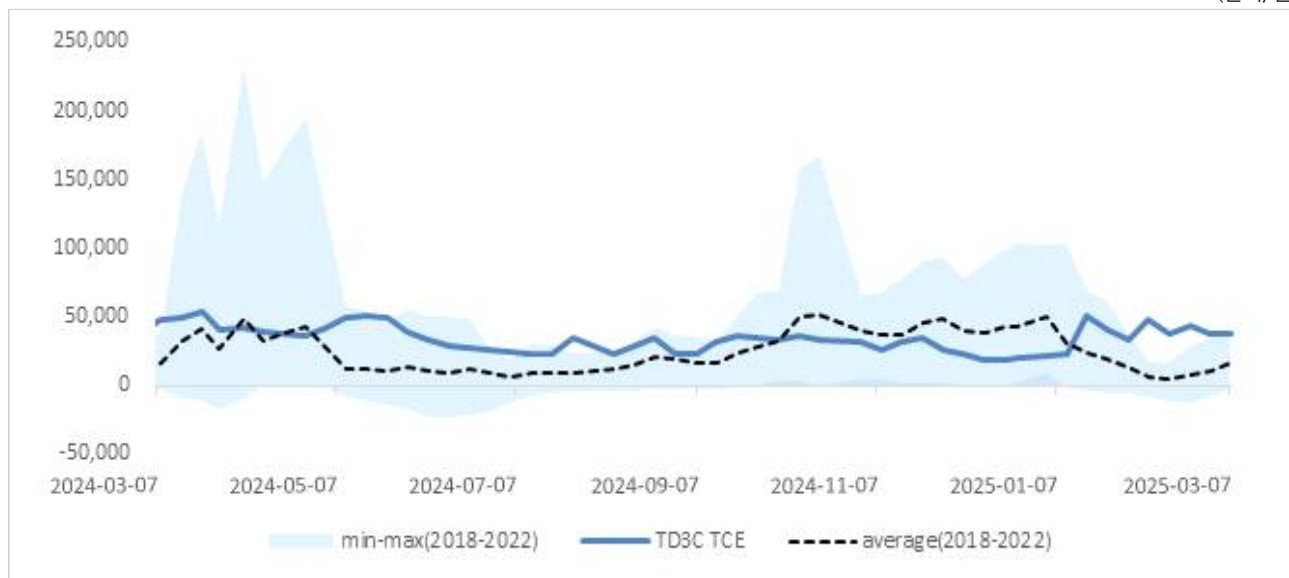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중동-중국 항로는 보험세를 유지하며 변동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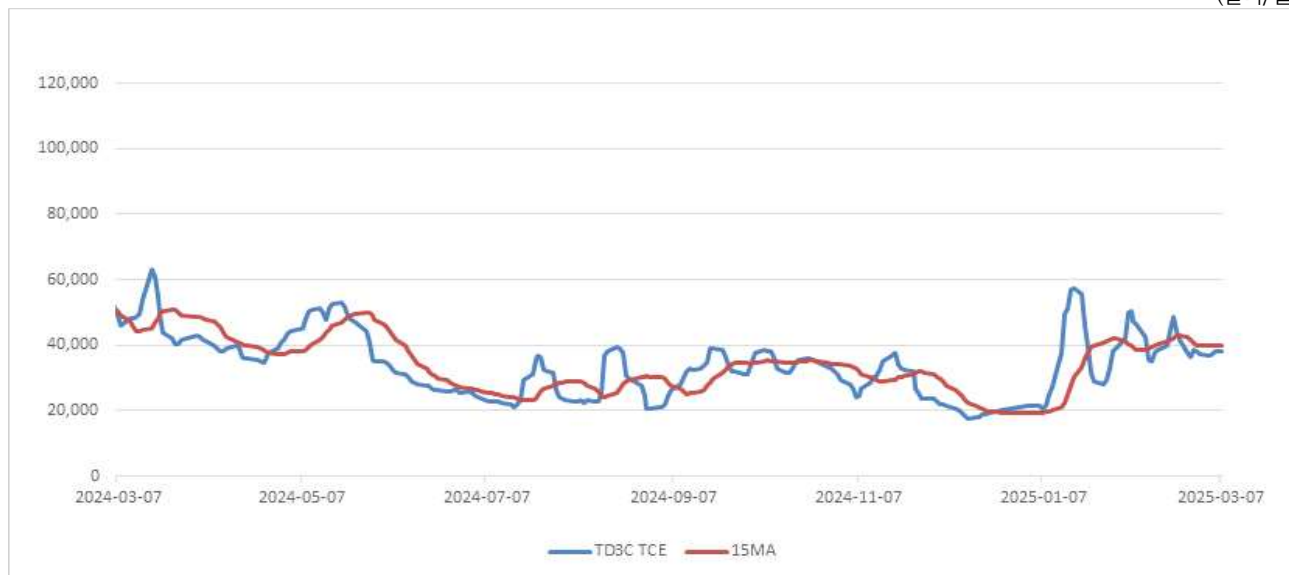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이동평균선과 수렴하고 있으며, 연초 급등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냄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금주 석유제품선 WS는 전주 대비 4.1p 하락한 154.2를 기록함

(운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약보합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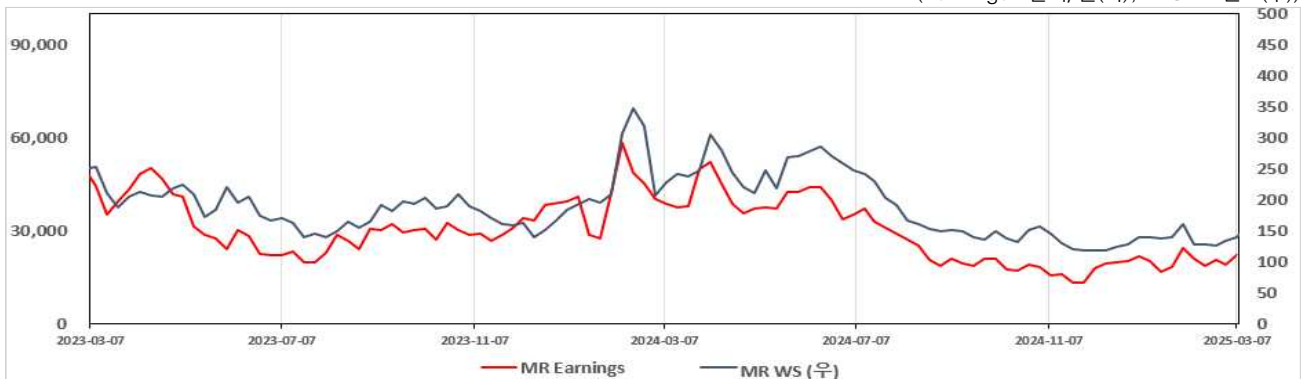
구분	3월 1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154.2	▼	4.1	2.6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30.0	▲	5.0	4.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135.0	-	0	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150.0	▼	10.0	6.3 %

(동향) 점진적인 성약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세 지속, 단기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LR2는 신규 수요 유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기타 선형은 점진적인 성약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미하여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OPEC+는 기존 계획대로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 8,000배럴의 원유 증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공급 증가로 유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석유제품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 안정화와 함께 시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3월 1주	전주대비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154.2	-4.1	125.7	160.3	140.7	119	348	202
	평균 수익	22,436	1,791	15,759	22,970	18,703	11,218	59,894	17,134
MR	1년 용선료	19,000	0	18,750	21,500	19,575	19,500	41,750	27,797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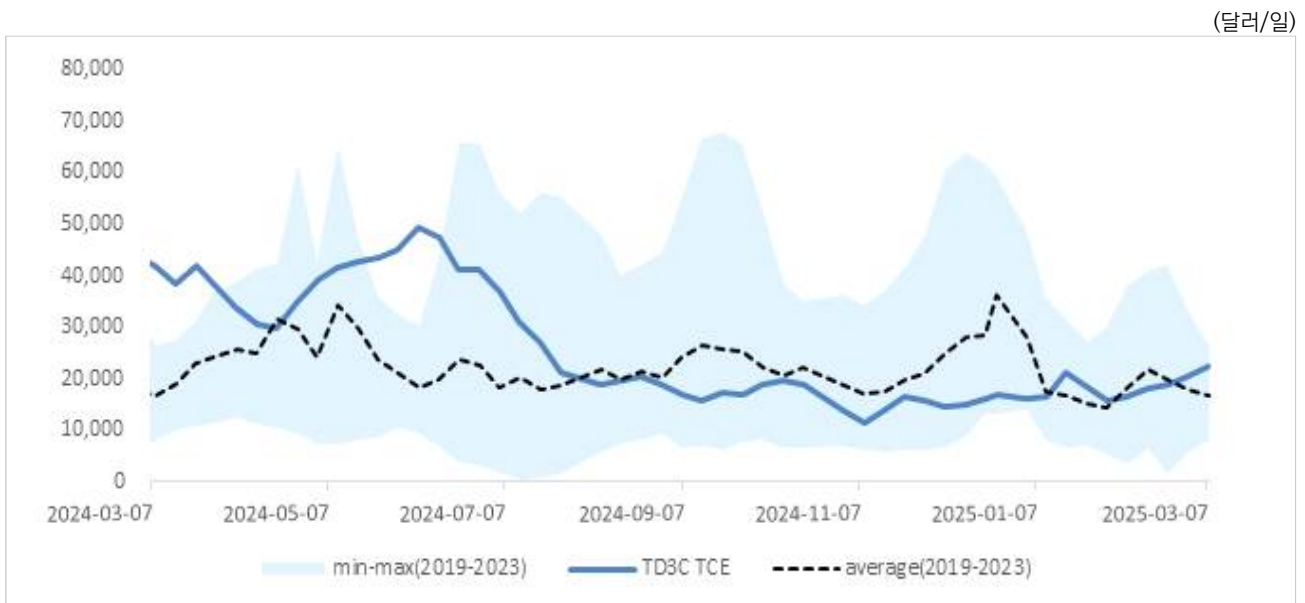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Ⅰ 수익 추세선은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자료: Clarkson

Ⅱ 수익 추세선은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31.4p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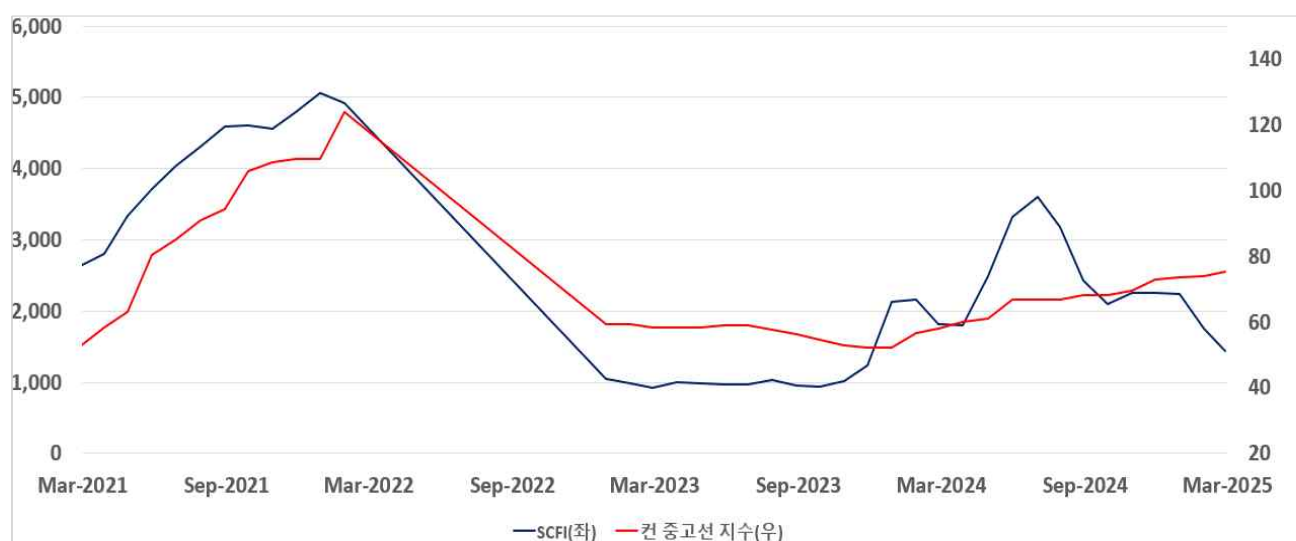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10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75.3p로 전월 대비 1.5p 상승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6. 주요 해운지표

(2025.03.1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3월 평균	2025년			2024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	-	-
유조선(5년)	VLCC	112	0	112	112	114	113	106	116	114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34	1	34	33	34	33	15	31	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7	0	37	37	37	37	35	37	36
유조선	VLCC	126	-1	126	126	129	128	128	131	129
컨테이너선	Sub-Panamax	44	0	44	44	44	44	41	44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40	-15	440	440	474	461	407	522	471
	Singapore	468	-25	468	468	514	497	439	536	485
	Korea	490	-17	490	490	527	512	475	563	515
	Hong Kong	477	-29	477	477	522	507	456	568	500
VLSFO	Rotterdam	503	-28	503	503	553	538	502	615	555
	Singapore	504	-27	504	504	604	568	548	657	610
	Hong Kong	517	-32	517	517	604	578	568	680	620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			-		
연료탄 (\$/Tonne)	국제價				-			-		
	중국産				-			-		
원료탄 (\$/Tonne)	호주産	-	-	-	-	-	-	-	-	-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025	-1	1,015	992	1,075	1,037	952	1,277	1,101
	밀(국제)	551	-4	548	529	618	562	524	700	578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4년 합계	2023년 합계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ASEAN	수출	9,804	9,649	8,599	114,011	109,123	124,889	108,826		
	수입	6,473	6,699	6,830	78,828	78,033	82,529	67,705		
NAFTA	수출	12,053	13,893	10,975	151,717	136,353	130,259	113,907		
	수입	6,577	6,741	7,132	86,499	85,097	98,901	87,472		
EU	수출	5,932	6,292	5,593	74,722	74,147	74,413	69,576		
	수입	5,435	7,256	4,617	69,321	73,011	73,966	71,740		
BRICs	수출	13,553	14,295	11,337	162,194	154,128	187,108	194,151		
	수입	13,301	14,706	13,184	163,110	168,691	189,991	173,28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